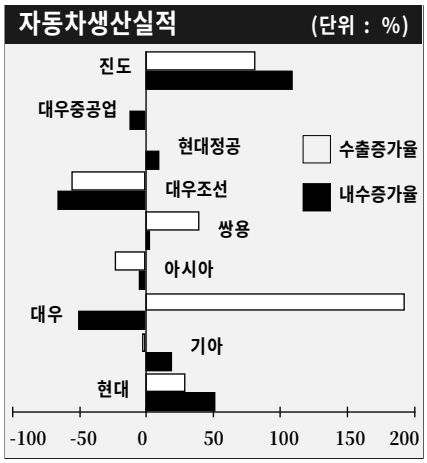
자동차용 도료 수요“급증"

수출 증가 힘입어 … 2/4분기에도 7%이상 성장 기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94년 1/4분기 자동차신차용 도료의 수요가 93년 동기대비 7%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94년 1/4분기 자동차 내수량은 35만3667대로 93년 동기대비 7.2% 증가했고, 수출 물량은 16만1205대로 18.1% 증가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수출차종의 다변화와 해외시장 판매망 확보로 2/4분기에도 지속돼 수출이 43.8% 증가한 20만2400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1/4분기 각사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11.8% 증가한 9만7824대,기아자동차는 48.2% 증가한 4만3278대,아시아자동차 18.4% 증가한 4344대,쌍용자동차 129.8%증가한 1949대로 나타났으며 대우자동차는 12.8% 감소한 1만2339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다소차이는 있지만 국내 자동차신차용 도료의 생산량도 7~10% 이상 성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2/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94년부터 삼성중공업에서 상용자동차를 생산 시판하고 있어 자동차신차용 도료의 신규시장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Nissan Diesel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15톤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올해 말까지 1200대 생산을 목표로 창원공장에서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따라 삼성중공업은 상용차에 들어갈 아크릴우레탄 도료 8개품목의 국내 공급선을 대한페인트,건설화학,벽산페인트,조광페인트로 압축해 놓고 조만간에 공급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자동차용 도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고려화학,건설화학,대한페인트,동주산업으로, 고려화학과 동주산업은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에 독점공급하고 있으며 대한페인트는 기아자동차에 72%, 아시아자동차에 87%를, 건설화학은 아시아자동차에 13%, 기아자동차에 28%, 쌍용자동차에 100% 공급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용 도료의 색깔별 추이를보면 솔리드,메탈릭,마이카의 비율이 92년 3대 5대 2에서 93년에는 2.5대 4.5대 3으로 마이카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4/6/6>